

## 생명—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

성경: 창2:9, 계2:7, 22:2, 14, 요1:4, 10:10하, 14:6상, 7:38, 12:24

### I.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그분의 원래의 의도는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었다—창2:9, 16, 계2:7.

- A. 생명나무는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시고 만족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창2:9, 요14:6상, 10:10하, 비고 요15:1, 출15:25.
- B. 창세기에 있는 생명나무라는 상징에 대한 설명과 성취는 요한복음에서 발견된다.
  - 1. 요한복음은 생명나무라는 표징의 성취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며, 나무 즉 포도나무이시다. 따라서 그분은 생명나무이시다—14:6, 15:5.
  - 2.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분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사실은 그분이 생명나무로서 음식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가리킨다—6:35, 57, 63.
- C.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중심이시며 성경 전체의 초점이다.
  - 1.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면 땅은 우주의 중심이고, 에덴 동산은 땅의 중심이며,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중심이다. 따라서 우주는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한다—슌12:1, 창2:7-9.
  - 2. 구약 성경은 생명나무로 시작하고(창2:9), 신약 성경은 생명나무로 끝난다(계22:2, 1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시라는 사상이 신성한 계시 전체를 관통한다.
- D. 하나님의 갈망은 사람이 그분의 형상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분 안에서 다스리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다—창2:7-12, 22.
  - 1. 생명이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고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끈다—롬8:2, 6, 29, 골3:4.
  - 2. 부활 생명이 권위를 준다—민17:8, 계20:4.
- E. 생명나무를 먹는 것, 즉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교회 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2:7.
- F.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생명의 사역이다. 생명만이 교회를 건축하는 유일한 수단이고 유일한 길이다—롬8:10, 6, 11, 요일5:16상.

### II. 오늘날 주의 회복은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의 시대에 있으며, 생명 안에서의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생명의 사역으로 교회 안의 찢어진 틈을 보수하고 있다—마4:21, 요1:4, 10:10하, 14:6상, 1:51, 2:19-22, 14:2-3, 23.

- A. 요한복음은 생명의 원칙, 생명의 목적 그리고 생명이 각 사람의 모든 상황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잔칫집을 산출한다는 것을 계시한다.
  - 1. 생명의 원칙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사례들의 의미는 생명나무는 생명을 가져오고, 지식나무는 사망을 가져온다는 원칙과 일치한다—2:1-11.
  - 2. 생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다—12-22절.
  - 3. 생명은 각 사람의 모든 상황의 필요를 채운다.

- a.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거둬나게 하는 것이다—2:23-3:36.
  - b. 부도덕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4:1-42.
  - c.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치유하는 것이다—43-54절.
  - d.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소생시키는 것이다—5:1-47.
  - e. 굶주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먹이는 것이다—6:1-71.
  - f. 목마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갈증을 풀어주는 것이다—7:1-52.
  - g.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7:53-8:59.
  - h. 종교 안에서 눈 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시력을 주고 목양하는 것이다—9:1-10:42.
  - i. 죽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부활하게 하는 것이다—11:1-57.
4. 생명의 결과는 아버지의 집, 아들의 우주적인 포도나무, 그 영의 새 사람인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잔칫집인 교회생활이다—12:1-11, 14:2-3, 23, 15:1-8, 16, 16:13-15, 21.
- B. 요한복음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넘치는 생명으로 누림으로 생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한다—요10:10하.
- 1. 우리는 생명의 숨이신 그리스도를 들이마실 수 있다—20:22.
  - 2. 우리는 생명의 물이신 그리스도를 마실 수 있다—7:37-39, 4:10, 14.
  - 3.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다—6:35, 57, 63, 68.
  - 4. 우리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행할 수 있다—8:12.
  - 5. 우리는 포도나무 곧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15:5, 14:6상.
- C. 요한복음은 우리가 행위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계시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계시한다.
- 1.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의 씨로 뿌리시고 한 알의 밀로서 땅 속으로 떨어지심으로 그분 속에 있는 생명을 해방하여 많은 밀알들을 산출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그분을 섬기고 따라야 한다—마13:3, 요12:23-26, 10:11, 요일3:16.
  - 2. 주님께서 교회를 산출하시고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은 속 생명이 밖으로 넘쳐 흐르는 것이지 외적인 활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요7:37-39, 4:10, 14.
    - a. 우리의 일에 관해 중요한 것은 그 양이 아니라 질이다. 금과 은과 보석은 항상 양은 적지만 질은 높은 데 반해, 나무와 풀과 짚은 항상 양은 많으나 질은 낮다—고전3:12-15.
      - (1)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하고,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일을 상징하고, 보석은 그 영의 변화시키는 일을 상징한다.
      - (2) 나무는 인간 본성을 상징하고, 풀은 육체를 지닌 사람을 상징하고, 짚은 생명 없음을 상징한다.
    - b.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일의 양에 따라서가 아니라 질에 따라, 곧 ‘그것이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13절.
    - c. “윗치만 나는 외적인 일을 관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사역에서 유출된 생명이 온 땅으로 흘러갔다. … 내가 평생 알아온 사람들 중에서 오직 그만이 일보다 생명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금세기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윗치만 니, 윗트 니스리 저, 92쪽).

### 생명—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

성경: 창2:9, 계2:7, 22:2, 14, 요1:4, 10:10하, 14:6상, 7:38, 12:24

“사람의 양식 되시려고 하나님 예수 안에 왔네  
지금은 주님 그 영 되어 무한한 공급해”

주의 회복을 인하여 할렐루야! 주의 회복은 생명에 의한, 생명에 속한 것이다. 주의 회복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생명에 의한 주의 회복’이란 주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경력과 목적을 수행하실 때에 유일하게 생명에 의해 수행하신다는 의미이다. 이번 주말에 우리는 생명에 의해 특별집회를 갖고 있다. 어제 밤에 교통할 때 우리는 예레미야서와 시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강하게 말씀하셨는가를 보았다. 우리가 본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냉철한 문제였다. 우리가 본 것은 주님의 공급하심과 말씀하심과 책망하심에 의하여 우리를 생명의 영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었다. 주님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원천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는 것이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한다. “주여, 내가 당신을 버리지 않게 하소서, 단 한순간도, 오늘 아침에도 당신을 버리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당신이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당신을 버리는 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가 응당이를 파지 않게 하소서, 당신에게서 독립되어 물을 저촉치 못할 터진 응당이를 파지 않게 하소서.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공급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당신께 돌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원천제로, 생명나무로 돌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밤의 말씀을 잠시 복습할 때 내가 누리거 체험한 여러 가지 요리를 상기하게 되었다. 우리 그 찬송을 함께 불러 보자. “주여, 나 여러 곳 헤매보았지만 이제 당신께 돌아옵니다. 다른 모든 것에서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이 나의 처음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한다. 우리는 생수의 원천이신 그분을 버리지 않기 원한다.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했던 것에서 회개하여 유일한 생수의 원천으로 돌아온다. 이제 그 어떤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 그리스도만이 우릴 만족시킬 수 있다고 외쳐보자. 이번 주말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다른 모든 것에서 유일한 생수의 원천이신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다. 시편 36편에서 “오직 생수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말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주님만이 생수의 원천이다. 주님을 찬양한다.

어제 밤 개요 로마 숫자 II번의 A번에서 주의 회복은 먼저 생명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분의 증후와 인도하심과 방향 제시를 인하여 우리가 이번 주말에 주님의 부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먼저 생명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 형제님께서 1989년에 FTTA를 시작하셨을 때에 일 주일에 네 번씩 말씀하셨는데 매주의 첫 번째 말씀은 생명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그분은 이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명에 관해 말씀하셨다. 주의 회복은 먼저 생명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명과 진리가 아주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생명을 만지고, 접촉하고, 누리고, 체험해야 한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 우리는 지금 워싱턴디시에 있다. 디시(D.C.)가 무슨 뜻인지 아는가? 그리스도를 분배함(Dispensing Christ)이라는 영어의 약자가 D.C.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분배를 누리는 것이다. 어제밤 메시지에서 로마숫자 II번의 D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신성한 생명은 하나님의 가장 으뜸되고 기본적인 속성으로 여겨질 수 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형제님은 하나가 최고의 속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은 으뜸되는 속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에 주의할 기우어야 한다.

나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다섯 가지 질문을 함으로 이 메시지를 시작하고 싶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라. 첫 번째 질문은 “생명이 있으십니까?”이다. “여보세요, 생명이 있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그렇다. 우리는 강하게 “있다.”고 말해야 한다. 두 번째 질문은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던가? 아직도 강하게 대답한다. 좋다. 세 번째 질문을 하라. “생명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라. 곁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아직도 제법 강하게 말한다. 생명 안에 자라고 있는가? 주님은 아실 것이다. 주님이 아실 것이다. 네 번째 질문이다. “생명 안에서 성숙했는가요?” 라고 물어보라. 뭐라고 대답하는가? 곁에 있는 사람이 “오, 주 예수여!” 라고 말하던가? 어제 우리 형제님이 그러한 답을 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다. 생명이란 것은 금방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생명을 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생명 안에서 성숙해야 한다. 한가지 질문만 더 해보라. “생명 안에서 완전히 건축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라. 뭐라고 대답하던가? “아직 잘 길이 멍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주님을 찬양한다! 우리는 과정 안에 있다. “할렐루야!” 라고 같이 외쳐보자. 내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명을 보아야 하고, 생명을 체험해야 하고,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생명 안에서 성숙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생명 안에서 건축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이 필요, 저 필요를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다음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나에게 17 개의 단어가 있다. 이것으로 생명을 묘사할 수 있다.

1. 생명은 하나님이다(엡4:18). 나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다. 라이프 스터디에서 식물의 생명, 풀의 생명, 곤충의 생명, 조금 더 큰 동물의 생명이 있고, 가장 높은 생명은 사람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해볼 때 다른 모든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2.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요3:16). 이 생명은 무한한 것이다.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이 없는 그런 뛰어난 생명이다. 귀중한, 영원한 생명이다.

3. 생명은 피조되지 않은 생명이다(요1:1-4). 이 생명은 피조되지 않은 생명이지만 항상 바베 창조하고 있는 생명이다. 당신 안에서도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을 창조한다. 나에게는 인내가 없지만 이 생명은 내 안에서 인내를 창조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창조하고 있다.

4. 생명은 그리스도 자신이다(요14:4). 주님은 “내가 곧...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다.

5. 이 생명은 온전한 생명이다. 주님은 성육신하시어 인간생활을 사셨는데, 그분의 생명은 인생의 모든 방면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온전한 생명인 것을 나타내셨다. 빌라도도 “이 사람에게서 아무 흠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을 세 번이나 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온전한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기쁘는가? 나는 정말 기쁘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니!

6. 이 생명은 승리에 찬 생명이다. 계시록 1장 18절에서 주님은 무엇이려고 하셨는가? “나는 산 자라.” 그분은 사망과 음부를 통과하시고 정복하셨다.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분이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승리에 찬 그분이 있는가? 그분은 사망을 패배시키셨을 뿐 아니라 사망의 부산물까지도 패배시키셨다. 그분은 낙심과 절망, 신음, 탄식, 공허, 허무 등의 부산물까지도 다 이기셨다.

7. 이 생명은 강력한, 능력에 찬 생명이다(행2:24). 나에게 이러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8. 이 생명은 부활 자체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다만 생명이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사망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이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을 찬양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감사를 드린다.

9. 생명은 그 영이다.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셨으므로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그분은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시어 이순간 그분 자신을 여러분과 내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분배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생명은 영!. “오 주는 생명 주는 영 참 친근하시니 주 아는 사람 그를 좋아해 항상 새롭네...” 그 영이라는 말

을 쓸 때 우리는 참으로 기뻐한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이시고, 생명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하고 가깝기 때문이다. 그 영은 우리에게 도달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와 연결되고, 연합되시고, 우리를 적시고, 채우고, 침투되고, 스며들고, 하나님으로 만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10. 생명은 구원한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더욱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불뭇에서 구원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도 많은 것들로부터 구원된다. 그 친근한 이름을 부르고 우리 영을 사용할 때 우리는 구원된다. 이웃에 앉은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라고 물어보라. 뭐라고 하던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나입니다.” 라고 대답했기를 바란다. 가장 기쁜 그리스도인은 금방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생명은 구원하는 생명이다.

11. 이 생명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명이다(롬5:17). 우리가 생명을 누릴수록 자아는 보좌에서 쫓겨나고,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보좌에 앉는다.

12. 이 생명은 썩지 않는 생명이다(딤후1:10). 주님을 찬양한다. 우리 안에는 썩지 않는 생명이 있다.

13. 이 생명은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이다(히7:16). 바깥에서 아무리 때리고 누르고 부수려 할지라도 이 생명은 더욱더 강하게 솟아나는 생명이다. 우리 영 안에 이러한 생명이 있음을 찬양한다.

14. 생명은 빛이다(요8:12).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분을 누릴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누린다.

15. 생명은 숨이다(요20:22).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분은 생명의 숨을 내쉬셨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직 숨쉬고 있는냐고 물어보라. 뭐라고 대답하든가? 그렇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할렐루야!

16. 이 생명은 물이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이 생명이 마실 수 있는 물로 흐름을 보여준다.

17. 이 생명은 음식, 곧 생명나무이다.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동화시키고 누려서 생명이신 놀라운 분으로 조성되게 한다.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또 한가지를 물어보라. “이웃이여, 당신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라. 뭐라고 대답하든가? 우리 각 사람은 생명나무의 축소판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생명이신 분의 간증을 위하여 함께 생명의 성, 생명의 건축이 되고 있다.

이 메시지의 제목은 ‘생명—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다. 우리 함께 강하게 읽어 보자. ‘생명—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 우리 생명에 관한 그 열 일곱 단어를 다시 한 번 읽어보자. 하나님, 영원한, 피조되지 않은, 그리스도 자신, 온전한 생명, 승리에 찬, 능력 있는, 부활 자체, 영, 구원하는 생명,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명, 썩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빛, 숨, 물, 음식.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가? 할렐루야! 생명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다.

## I.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그분의 원래의 의도는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었다—창2:9, 16, 계2:7.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의 갈망과 선한 기뻐하심을 포함한 그분의 계획과 의도와 뜻으로서, 그것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분배해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생명이신 그분으로 채워지는 것 외에는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그분의 원래의 의도는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었다. 개는 고양이를 표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에게는 고양이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먹음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원하신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직후에 동산 중앙에 두셨는데,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것은 사람이 그분을 먹음으로 하나님을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오직 유일하게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것, 저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먹으라는 것이었다.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교회생활에서 가장 일차적인 문제이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그분의 원래의 의도를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생명으로

적셔져서 그분의 간증을 위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사람에게 그분의 형상과 통치권을 주시어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대표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직후에 사람을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앞에 두신 것은 사람이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먹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16절에서는 에덴 동산에 먹기 좋은 나무가 많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아주 즐겁고 유쾌하고 기쁜 일이다.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먹음으로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2장 7절을 같이 한 번 읽어 보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이들은 천년 왕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 그러나 지금 교회 생활은 그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낙원의 축소형이 되어야 한다. 교회 생활 안에서 가장 일차적인 문제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를 이기는 자의 길로 가게 한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라고 물어보라. 뭐라고 말하는가? “그렇다.”고 하는가? 그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되는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할지라도, 은사나 유창함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 달려 있다.

이 개요의 순서는 너무나 귀하다. 로마 숫자 1번은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에 관한 것이다. 또 로마숫자 11번을 보면, 오늘날의 주의 회복으로 시작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오늘날 주의 회복을 다루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말에 여기에 있다. 로마 숫자 1번 밑에 대문자 번호들이 아주 귀한데, A번이 너무나 귀하다.

A. 생명나무는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시고 만족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창2:9, 요14:6상, 10:10하, 비교 요15:1, 출15:25.

이것은 정말 소중한 중점이다. 생명을 나눠 준다는 것은 생명을 분배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분배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생명은 또한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게 한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분배하는 것만이 당신을 기쁘게 하고 만족게 한다. 마태복음 3장에 주님의 침례에서, 마태복음 11장의 주님의 변형에서, 아버지께서 강하게 간증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이 아들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나를 만족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분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만족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해줄 때 우리는 기쁘고 만족게 된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믿고 여러 해 동안 주님을 관심하고 주님을 사랑했지만, 내가 회복 안에 들어와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여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처럼 기쁜 때는 없었다. 이 온 우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기쁨 내게 넘쳐 찬만하네 찬만하네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주의 영광 입으로 다 말 못하겠네...”

처음 와서 이 찬송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셨다면 미안하다. 어쨌든 여러분이 그 곡조를 모르면 그냥 자기 맘대로 부르면 된다. 그래도 기쁨은 우리에게 넘쳐 찬만하다.

창세기 2장 9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정말 좋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넘치도록)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반절은 말한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는 그분이 포도나무라는 것을 말한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리에 이르렀는데, 물이 아주 썼다. 그 때 어떻게 했는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다. 그 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일반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쓴 것이다. 나는 많은 성도들, 많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아주 쓰게 된 성도들을 보았다. 교회생활 안에 있으면서 점점 더 써지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생명나무를 누리는 것,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중단하고, 선악 지식나무를 만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쓴 것이 나왔다. 쓴 것은 모든 곳에 퍼진다. 쓴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쓴 것이 죽임당할 수 있고 단 것으로 바뀔 수 있음을 감사드린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던짐으로 쓴 것이 달아질 수 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영을 사용할 때, 우리가 찬송하고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우리는 이 나무를 쓴 물 속에 던지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당신은 아주 달콤한 사람이 된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에서 '오 주 아멘 부름으로 주를 누리네 달콤하고 놀라우신 주를 맛보네'라는 찬송이 있지 않은가? 그분이 우리를 달콤하게 만드신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말한다. 주의 회복은 달콤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쓴 것의 화신으로서 걸어다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누릴 때, 우리는 그 쓴 물에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던지게 되고 우리는 달콤하게 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보세요, 당신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라고 말해보라. 이 집 회장소는 정말 달콤한 곳이다. 나는 이 장소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나무를 인하여 할렐루야! 쓴 것을 달게 만드는 그 나무를 인하여 할렐루야!

B. 창세기에 있는 생명나무라는 상징에 대한 설명과 성취는 요한복음에서 발견된다.

창세기에 있는 모든 상징의 성취와 설명은 요한복음에서 발견된다. 이 메시지의 대부분은 요한복음에 관한 것이다.

1. 요한복음은 생명나무라는 표징의 성취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그리스도는 생명이며, 나무 즉 포도나무이다. 따라서 그분은 생명나무이다—14:6, 15:5.

여기 14장 6절과 15장 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이고, 그분이 나무, 즉 포도나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분은 생명나무이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에서 주님은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분은 "내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그 포도나무와 생명이라는 두 단어를 함께 들 때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나무라는 표징의 성취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모든 상징에 대한 설명과 성취는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된다.

2.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분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사실은 그분이 생명나무로서 음식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가리킨다—6:35, 57, 63.

할렐루야! 우리의 그리스도는 음식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이 좋지 않은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않고, 나를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왜 음식의 모양으로 오셨는가?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57절을 보면,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한다. '나'를 향하여 열려 있고, 먹고, 소화시키고, 씹고, 되새김질하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는 것이다. 매일 아침 우리는 그분께 열어드리고 그분을 먹는다. 생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도함으로 먹는다. 그럴 때 우리는 자양분을 얻고 공급을 얻는다. 소화하고 동화하시키는 이러한 것을 하루에도 일곱 여덟 차례 해야 한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생활이 되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생활의 내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나로 인하여 살리라'는 우리가 바깥에서 목발을 잡고 그분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그분에 의해서 사는 것을 말한다. 63절에서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신 것이 기쁘지 않은가?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내가 나가서 2층에 가서 보니 뷔페가 있었다. 그 뷔페는 정말 우리를 가고 싶게 만들었다. 내가 가지는 않았지만, 음식이 있을 때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만족함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주셔서 그분을 먹고 누리게 하셨다. A와 B번에 있는 항목들은 생명나무에 대한 정의가 될 것이다.

C.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중심이시며 성경 전체의 초점이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과 성경 전체의 초점을 얻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분이 성경의 초점이고 우주의 중심이다.

1.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면 땅은 우주의 중심이고, 에덴 동산은 땅의 중심이며,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중심이다. 따라서 우주는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한다—창12:1, 창2:7-9.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문장인가! 이 문장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읽어주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면 땅은 우주의 중심이고, 에덴 동산은 땅의 중심이며,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중심이다. 따라서 우주는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한다.' 스가라서 12장 1절을 볼 때,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매일매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초점이 무엇이 되어야겠는가? 교회생활의 중심은 바로 생명나무, 우리가 먹은 그리스도이다. 스가라서 12장 1절에서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한다. '하늘을 퍼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자가 가락사대'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앞에 두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중심이시라는 것을 보여준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놀라운 생명,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중심이 되셔야 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중심이 없다. 이 중심이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한다. 오늘날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문제는 기독교 안의 분열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회복하시고 하나를 이루신다. 이 유일한 중심이신 생명나무를 우리가 누릴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2. 구약 성경은 생명나무로 시작하고(창2:9), 신약 성경은 생명나무로 끝난다(계22:2, 1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라는 사상이 신성한 계시 전체를 관통한다.

구약 성경은 생명나무로 시작하고, 신약 성경은 생명나무로 끝난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14절에서 보면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상이 신성한 계시 전체를 꿰뚫고 있다. 이 생명나무는 넘치는 생명이다. 창세기에서 보면, 계시록 22장에 보면, 일만 이천 스타디온의 정방형으로 된 이 성의 꼭대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생명강이 나선형으로 성 전체를 흘러 열 두 문을 통하여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



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먹고 누린 그리스도로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만족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미국의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 일리노이, DC, 플로리다, 한국, 일본, 텍사스, 러시아,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게 하는 생명나무!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넘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넘치는 생명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나무인가! 모든 사람을 만족게 하여 그분의 경륜을 이루는 그러한 나무이다. A, B번은 생명나무의 정의를 말하고, C번은 생명나무의 위치를 말한다. 생명나무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D. 하나님의 갈망은 사람이 그분의 형상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분 안에서 다스리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다—창2:7-12, 22.

생명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다. 여기 있는 구절 창세기 2장 7절부터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강이 발원하여 귀한 재료가 나왔다. 또 그 사람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셨다. 그러므로 영을 사용하여 생명나무를 먹고, 체험하고, 누릴 때, 매일매일 매순간 그분을 누릴 때, 우리는 귀중한 재료가 되어 하나님의 건축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몸을 건축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만족을 위한 신부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며, 생명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럴 때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할 것이다. 여자가 건축된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간증을 위하여 건축되어 이 땅에서, 이 우주 안에서 그분의 표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1. 생명이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만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고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끈다—롬8:2, 6, 29, 골3:4.

생명이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한다. 로마서 8장 2절, 6절, 29절, 골로새서 3장 4절이 여기에 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적으로 구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분은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생명의 흐름 안에 머물러 우리의 온 존재가 변화되어 생명이 되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고, 8장 6절은 생각이 또한 생명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 8장 29절에서는 이 생명이 우리를 어떤 형태로 형태짓는 것을 보여준다. 이 생명은 내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형태를 지어서 하나님의 만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한다. 더욱더 변화될수록 형태지어져서 우리는 그분의 간증에 걸맞는 형상으로 변화되고 많은 형태들로서 만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생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생명이 우리에게 형태를 지어주고 형상을 이루게 한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면, 생명이 우리를 형태짓고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여 결국 그분과 같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 찬송에도 “영광 영광 주는 내 생명, 영광 영광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비밀일세 영광의 소망” 하는 후렴이 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소망이요 그분은 영광이시다.

2. 부활 생명이 권위를 준다—민17:8, 계20:4.

민수기 17장에 싹난 지팡이가 있다.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지팡이가 다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오직 하나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우리가 공동 왕이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릴수록 더 권위를 갖게 된다. 당신의 강한 기질과 강한 말과 강한 행동으로,

당신의 교육과 지성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결코 되지 않고, 커다란 재난만 올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생명을 누린다면, 교회 생활 안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긴다면, 자동적으로 권위가 있게 될 것이다. 부활 생명이 거기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그분은 우리를 밖에서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카를로스, 입닥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떡으로 오셨다. 심지어 상 아래 작은 강아지가 먹는 떡 부스러기로 오셔서 우리가 누리게 하셨다. 그분은 생명나무로 오셔서 우리에게 먹히심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누린다. 우리를 다스리는 임금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자아를 보좌에서 쫓아내어 우리로 그분과 함께 공동왕이 되게 하신다. 그분을 먹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를 먹는 것만이 길이다. 먹는 길밖에 없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도 숨쉬고 있냐고 물어보라. 뭐라고 대답하는가?

A, B는 생명나무의 정의, C번은 생명나무의 위치, D번은 생명나무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E번은 표어 중 하나이니 함께 읽어보자.

E. 생명나무를 먹는 것, 즉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교회 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2:7.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30 초 동안 그 표어를 먹어보라. 이것은 정말 엄청난 말씀이다. 이 특별집회의 큰 부담이 여기에 있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누리는 것이다. 먹는다는 것은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공급을 받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은 그 때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에 자극을 받고, 모든 것이 당신을 괴롭힌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성가신 일이 된다. 공급을 못 받을 때는, “아,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이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안 서고. 당장 프론트데스크에 가서 따져야겠어.” 그렇게 된다. 그러나 공급을 받으면,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를 기다려도 노래가 나온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하고 찬송하게 된다. 바울과 실락는 사도행전 16장에서 감옥에 갇혔다. 그것은 정말 불공정한 처사였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게 말이나 돼? 이건 정말 나쁜 일이야. 진짜 이거 기분 나쁜 일이야. 나는 감옥에 갈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저 쥐좀 봐. 얼마나 큰가! 아, 우리 지금 여기 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그들을 부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생명나무를 누림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있었다. 그들은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그 때 그들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유럽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무엇을 관심했는가? 가장 중요한 일을 관심하고 있었다. 형제 자매들이여,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로 회복한다. 로마 숫자 1번에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생명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가장 중요한 일,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관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이 말을 잠시 더 생각해 보자. 우리는 여러 다른 지방 교회에서 와서 함께 쉬이고 있는데,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와서 함께 쉬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먹는 것,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이번 주말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워싱턴 DC는 바로 Dispensing Christ, 바로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온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현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권위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은 정말 귀중한 것이다.

회복역을 한번 펴 보자. 여기 얼마나 놀라운 각주가 있는지! 즙이 많은 건강 식품인 이 모든 각주를 인하여 주님께 찬양한다. 이 각주가 성경을 열어주고, 우리를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7절에서, 처음 사랑을 떠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등대를 옮기리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서는 “이기는 이에게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나무로 누리고 주님의 간증인 금등대가 되어 빛을 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구절 앞에 있는 1절을 보면, 그 영이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말한다. “너에게는 많은 행위가 있다. 그러나 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요, 생명이요, 빛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먹고 누리는 것이고, 그분과 똑같이 되어, 그분의 재생산이 되는 것이다.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등대이다. 그러므로 너도 등대가 되어, 빛나는 자가 되어, 그분의 형상이 되고, 그분의 통치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두신 주님께 찬양드린다. 각주에서 이 세 가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간증이 되는 것은 함께한다.’ 라는 것이 마지막 문장이다. 그 세 가지는 함께한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먹고 누릴 때 빛을 발하는 간증이 된다. 여기에서 중심은 바로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음식이 되신 그분을 사랑한 결과는 바로 빛나는 간증인 등대가 되어 그리스도를 전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생명나무를 먹는 것,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교회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멘.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교회 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관심하십시오.” 라고 권하고 격려해 보라.

F.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생명의 사역이다. 생명만이 교회를 건축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유일한 길이다—롬8:10, 6, 11, 요일5:16상.

여기에서 ‘유일한’이라는 단어를 주의하라. 교회를 건축하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로마 숫자 1번에 있는 번호들 A, B번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이고, C번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위치를 말하고, D번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기능을 말하고, E번은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나무를 누리는 것이 교회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F번에서는 교회가 생명의 사역에 의해 건축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교회가 건축되는 유일한 길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주의 회복의 유일함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유일한 길이다. 교회는 생명에 의해 건축된다.

로마서 8장 10절을 보자. 거기에서 영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6절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영에 두어질 때, 우리의 생각이 생명이 된다고 말한다. 결국은 그 생명이 우리 죽을 몸까지 도달하여 우리의 몸까지도 생명이 되는 것을 11절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 부분으로 된 우리에게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분배하심으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가 생명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생명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분배된다. 그럴 때 그 결과 생명 안에서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다. 주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갈망이다. 우리 각 사람이 교회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의하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생명의 사람들이 되어 생명을 공급함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다.

내가 한 열흘 전에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와 도쿄로 갔는데, 주님을 누리다가 내 옆에 앉은 여자분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는 불교, 천주교, 또 콰보브리또 등의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주님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며 전도지와 ‘인생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주님을 그의 생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럴 때, 정말 비행기 타고 날라가기가 훨씬 더 쉬웠다. 몇 분밖에 안 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은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 분배의 목표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그것 역시 다 생명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II. 오늘날 주의 회복은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의 시대에 있으며, 생명 안에서의 하나님의 건축

을 위해 생명의 사역으로 교회 안의 찢어진 틈을 보수하고 있다—마4:21, 요1:4, 10:10하, 14:6상, 1:51, 2:19-22, 14:2-3, 23.

바울의 사역은 완성하는 사역이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생명 주는 영,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완성하는 사역을 했다. 바울이 죽은 뒤 25년 지난 후에 커다란 이단이 있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고, 찢어진 틈이 있었을 때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이 있었다. 특별히 여러분이 요한복음, 요한의 서신서들, 계시록을 읽어보면 도처에 생명이 있다. 생명, 생명, 생명이 있다. 보수하는 사역은 생명의 사역이다. 찢어진 곳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로 우리를 돌이키는 것은 생명이다. 오늘 주의 회복에 필요한 것은 생명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의 회복은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의 노선에 있는 것이다. 수리하고 보수하고 건축하는 사역,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이루는 사역은 바로 생명의 사역이다. 이 보수하는 사역을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요한은 그물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한다. 10장 10절 하반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신다. 그분은 얼마나 많은 때 생명을 언급하셨는지 모른다.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그리스도를 생명을 누릴 때에 우리는 수리되고 보수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회복되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더라”. 이것은 야곱의 꿈을 언급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생명에 의해 산출되고 건축됨을 말한다. 하늘에 속한 왕래가 여기 있다. 하늘이 땅과, 땅이 하늘과 연결된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사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연결하는 사다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것이다. 내가 교파에서 자라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야곱의 사다리를 올라갑니다. 모두가 더 높이 올라갑니다.” 하는 노래를 불렀다. 나는 회복 안에 돌아와서 가사를 “우리는 야곱의 사다리를 먹고 있습니다. 먹을 때마다 맛이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불렀다. 할렐루야!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길이다. 그리스도를 누릴 때 무엇이 산출되는가? 하나님의 집이 산출된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인자가 건축의 요소와 재료가 된다.

2장 19절부터 22절을 보면 주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한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 으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몸을 말하지만, 그들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말하는 줄 알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분은 부활하시어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느냐고 물어보라. 뭐라고 대답했는가? 그렇다고 대답했는가? 또 한 가지를 물어보라. “이 생명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라. 이 생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길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 로마숫자 II 번 밑에 있는 A번 요한복음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보는 조망이다. 우리는 헬리콥터에서 이 공간을 내려다 보면서 조감도를 갖는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명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A. 요한복음은 생명의 원칙, 생명의 목적 그리고 생명이 각 사람의 모든 상황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잔칫집을 산출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1. 생명의 원칙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사례들의 의미는 생명나무는 생명을 가져오고, 지식나무는 사망을 가져온다는 원칙과 일치한다—2:1-11.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결혼 잔치가 있었다. 주님은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을 상징하는 여섯 개의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다. 그 물은 사망을 상징한다. 사람은 그렇게 즐거운 결혼을 누릴 때도 사망 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기껏 누리는 것이 사망뿐이다. 사망이 아구까지 왔을 때, 주님이 오셨다. 생명의 원칙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생명나무의 원칙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도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계신다.

## 2. 생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다—12-22절.

2장의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건축이다. 하나님의 건축은 특별히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건축을 말한다. 2장 전반부에 보여진 그 생명에 의해서 그분은 2장의 후반부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는 건축을 이루신다.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리라”는 것이다. 어떻게 건축하시는가? 생명으로 건축하신다.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는가? 생명에 의해 건축하신다.

## 3. 생명은 각 사람의 모든 상황의 필요를 채운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우리 a번부터 i번까지 같이 읽어보자.

- a.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거둬나게 하는 것이다—2:23-3:36.
- b. 부도덕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4:1-42.
- c.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치유하는 것이다—43-54절.
- d.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소생시키는 것이다—5:1-47.
- e. 굶주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먹이는 것이다—6:1-71.
- f. 목마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갈증을 풀어주는 것이다—7:1-52.
- g.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7:53-8:59.
- h. 종교 안에서 눈 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시력을 주고 목양하는 것이다—9:1-10:42.
- i. 죽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부활하게 하는 것이다—11:1-57.

여기에 많은 필요가 있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기 여러 다른 사례에서 주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생명은 그 모든 사례의 필요를 채운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 걸으로 볼 때는 아주 좋아 보이는 니고데모가 있었다. 아마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나이 많은 신사 양반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생명이 그의 필요를 채운다. 걸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사람 같지만 사실 당신은 죽은 사람이다.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례, 이 모든 필요들은, 도덕적인 사람이나 부도덕한 사람이나 목마른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이나 무능한 사람이나 다 죽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이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다. 걸으로 볼 때에는 아주 완벽해 보이고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주님은 첫째로 “너는 죽어 있고, 너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신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주님은 “니고데모야, 너는 아주 좋아 보이지만, 사실 너는 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은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아주 좋아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떠나면 당신은 사실상 뱀입니다.”라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를 떠

나서는 우리는 죽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망의 화신이다. 우리에게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서 모든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주여, 당신의 증홀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 되십니다!”

도덕적인 사람, 부도덕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사람, 결국은 죽은 사람이 나온다. 이 여러 사제의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날 때 이 모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된다. 어떤 사람은 더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덜 나타날 뿐이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다 그런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다 부도덕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고,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먹고 생명 공급이신 그분을 누릴 때 소위 도덕적이라 하지만 죽어있는 사람, 부도덕하고 죽어가고 무기력하고 굶주리고 목마른 우리, 마귀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주님의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을 통해서 무엇이 되는가? 생명의 사람이 된다. 우리는 생명의 건축이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가가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된다. 주님을 찬양한다. 이 어떠한 기적인가! 주님이 이 엉망진창인 우리를 가지고 그분의 걸작품을 만들다니!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생명으로 이루신다.

“나의 주 주 주가 내 생명 됐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미해  
나의 주 주 주가 내 생명 됐네 할렐루야 찬미해  
내 눈 밝아 보게 됐네 내 안에 계신 주 보네...”  
이 생명이 우리로 할렐루야를 외치게 한다.

4. 생명의 결과는 아버지의 집, 아들의 우주적인 포도나무, 그 영의 새 사람인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잔칫집인 교회생활이다—12:1-11, 14:2-3, 23, 15:1-8, 16, 16:13-15, 21.

요한복음 12장에 베다니가 있다. 문둥이 시몬의 집이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있다. 거기 교회 생활의 그림이 있다. 생명나무를 누린 결과 교회생활은 진짜 활력그룹이 되는 것이다. 활력이 충만하게 된다. 우리는 생명을 누림으로 다 부활한 사람이 된다. 우리는 매일 아침, “주여, 당신을 요체로 누립니다.” 라고 기도한다. 요체는 주님의 부활과 관계된 것이다. “주여, 나를 당신의 어떠한 심과 똑같이 만드소서.” 라고 기도한다. 정결케 된 죄인들인 우리를 부활 안에서 살아 있는 자들인 나사로가 되게 한다. 그분은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 잔칫집을 만든다. 거기 정결케 함을 받은 죄인들이 있고, 부활 안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살아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마르다는 봉사하고 있고, 나사로는 간증하고 있고, 마리아는 사랑을 쏟아붓고 있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이 교회 생활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어야 한다. 잔칫집이 우리의 간증이어야 한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잔치로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교회생활이다. 부활한 자, 간증하는 자, 살아 있는 자, 사람들에게 음식 나눠주는 자, 이러한 자가 가득한 잔칫집, 향기가 가득하고, 사랑을 쏟아붓는 그러한 집이 바로 교회생활이다. 부활 안에 있는 사람들,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다 생명의 결과이다. 생명의 결과를 인하여 할렐루야! 생명의 결과는 바로 잔칫집이다. 이것이 좋지 않은가? 아멘.

헬리콥터를 타고 보는 조망에는 또 아버지의 집이 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 안에서 확대될 때 아버지의 집이 된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포도나무가 나온다. 그리스도가 번성하여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다. 16장에서는 또 새로 태어난 아기인 새 사람이 나온다.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이요, 모든 지체 안에 계신다. 당신이 생명을 관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생명만을 관심한다.

B. 요한복음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넘치는 생명으로 누림으로 생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요10:10하.

아름 가지 사례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러나 잔칫집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그분에게 몸이 필요하고, 사랑의 향기가 넘치는 집이 필요하다. 그분에게는 간증이 필요하다. 그분에게는 부활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분의 필요이다. 우리는 이번 주말에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 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이것이 다 생명을 누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을 누릴 수 있는가? 요한복음은 우리가 그분의 넘치는 생명을 누림으로 생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1. 우리는 생명의 숨이신 그리스도를 들이마실 수 있다—20:22.
2. 우리는 생명의 물이신 그리스도를 마실 수 있다—7:37-39, 4:10, 14.
3.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다—6:35, 57, 63, 68.
4. 우리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행할 수 있다—8:12.
5. 우리는 포도나무 곧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15:5, 14:6상.

그러므로 들이 마시고, 마시고, 먹고, 행하고,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가? 교회생활은 바로 생명이 모든 필요를 채운 결과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이 생명을 누림으로 산다. 호흡하고 마시고 먹고 행하고 거함으로 생명나무이신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이를 수 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일하는가? 그것은 마지막에서 보여준다. 이 추수감사절 주말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마시고 먹고 행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홈 스위트 홈'에 있다. 겉으로 우리는 호텔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거처이다. 이 거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모든 것으로 누린다. 음식으로, 물로, 오락으로, 모든 것으로 누린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는 우주 안의 모든 긍정적인 것의 실체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는 다만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항상 그분께 열어드리고, 우리 마음을 그분께 돌이키고, 우리의 영과 마음과 입을 열어서 그분의 사랑스런 이름을 불러야 한다. 주님을 찬양한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10초 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 예수여' 하고 함께 외쳐보자.

'우리의 분깃이신 그리스도'라는 맛있고 짭짤한 책에서 이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서 그분을 먹고 마셔야 한다. 우리는 영 안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 우리는 생생하고 신선하고 자양분이 넘치는 것을 느낀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을 너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만족하기보다 탈진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을 접촉하고, 읽는 것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지만, 읽기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양분이 공급되고, 만족되고, 힘이 생기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분배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실행한다면, 어떠한 달콤함과 소중함과 풍성을 누리게 될지 말로 다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생명나무의 축소판이 되어 달콤하고 풍성하고 소중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 당신은 정말 달콤합니다." 라고 말해보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만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기 때문에 달콤한 것이다. 마지막 증점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일하느냐를 보여준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증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얻을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우리는 반드시 생명 안에서 생명에 의해 살아야 하고 생명에 의해 일해야 한다.

C. 요한복음은 우리가 행위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계시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계시한다.

1.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의 씨로 뿌리시고 한 알의 밀로서 땅 속으로 떨어지심으로 그분 속에 있는 생명을 해방하여 많은 밀알들을 산출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그분을 섬기고 따라야 한다—마13:3, 요12:23-26, 10:11, 요일3:16.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에 나사르가 부활한 후에 주님은 아주 유명해지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다. 그 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시고 아버지를 높이셨다. 자기의 혼 생명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간증하셨다.

며칠 전에 일본어 통역을 하시는 모토 형제님의 부인이 주님께로 가셨다. 43세 밖에 안 된 자매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에서 간증이 정말 놀라웠다. 그 자매님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두 번째로는 일본에서 온 성도들 중 그 히로미 자매님과 모토 형제님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간증을 했다. 그 자매님은 항상 영으로 돌이키고 누린 자매라는 것을 간증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영을 훈련하고, 항상 영을 사용하여 주님을 사랑한 자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항상 생명나무를 먹어서 작은 생명나무가 되었던 그 자매의 간증을 들었다. 또 다른 많은 성도들이 간증했다. 그 자매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공급했는지, 그 얼굴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공급이 있었는지, 그 자매가 생명나무를 누림으로 항상 생명을 공급한 것을 간증했다. 그녀의 삶은 항상 한 알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었다. 그녀는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께 열어드리고 자아를 부인하고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을 살았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영 안에서 누리는 삶이었다.

나는 우리의 주님이 한 알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죽고 부활하신 분임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 이 분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귀중한 구절들이 다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분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이 분을 누리기 원한다. 그럴 때 생명과 표현이 똑같이 될 것이다.

2. 주님께서 교회를 산출하시고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은 속 생명이 밖으로 넘쳐 흐르는 것이지 외적인 활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요7:37-39, 4:10, 14.

주님을 찬양한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죄 많은 여인이 구원받았을 때 그분의 생명을 누렸다. 주님이 그녀에게 “첫째로 너는 가서 내 일을 말하라. 둘째로는 이걸 해라. 셋째로는 저걸 해라.” 하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온 동네에 가서 주님께 대해서 간증했다. 주님이 생명나무가 되셔서, 그녀는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 결과 그녀는 외적인 활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누림으로, 생명의 강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누림으로, 영원한 생명인 새 예루살렘에까지 솟구쳐나오는 그 생명의 샘을 누림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녀는 결코 목마름이 다시 없는 그 강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목마름이 다시 없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자고 말해보라. 당신이 결코 목마르지 않는 원천을 마신다면,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면 당신도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생명을 산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 a. 우리의 일에 관해 중요한 것은 그 양이 아니라 질이다. 금과 은과 보석은 항상 양은 적지만 질은 높은 데 반해, 나무와 풀과 짚은 항상 양은 많으나 질은 낮다—고전3:12-15.



- (1)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하고,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일을 상징하고, 보석은 그 영의 변화시키는 일을 상징한다.
- (2) 나무는 인간 본성을 상징하고, 풀은 육체를 지닌 사람을 상징하고, 짙은 생명 없음을 상징한다.

산더미 같은 짙이 있다 할지라도 한 덩어리의 금보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생명에 의해 일해야 한다. 선악 지식에 의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수천 명을 얻는다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원치 않는다면 그것은 다만 나무와 풀과 짙일 뿐이다. 우리는 다만 그 영의 길을 취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 길을 가야 한다. 우리의 가정이 열릴 때 주님은 양떼와같이 많은 사람들을 증가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회복에 들어온 후 얼마 안 되어서 인도하는 형제님이신 제임스바버 형제님과 하워드 히가시 형제님과 내가 복음 운동을 하는 큰 교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별로 갈 마음은 없었지만 하여튼 가게 되었다. 거기 가서 극장같이 생긴 내부와 음악과 드라마를 보았다. 성가대가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여러 가지 연주하고, 여러 가지 조명이 비추고 하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어떤 여자가 아주 요란한 옷을 입고서 “사랑이 무엇가요 사랑이 무엇가요...” 하며 온 몸을 뒤흔면서 노래를 했다. 그 때 나는 눈을 가렸다. 볼 수가 없었다. 노래의 제일 마지막에 가서야 “사랑은 예수예요” 라고 했는데, 정말 그 모든 음악은 나로 하여금 세상 생각이 나게 했다. 그 때 우리는 다시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결코 저러한 길을 취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주의 회복은 유일한 것이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취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고,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 우리는 생명에 의해 살고 생명에 의해 일해야 된다. 대신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 뿐이다. 놀라운, 누릴만한 생명나무의 길. 그 길뿐이다.

- b.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일의 양에 따라서가 아니라 질에 따라, 곧 ‘그것이 어떤 종류인가’ 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13절.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 c. “윗치만 나는 외적인 일을 관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사역에서 유출된 생명이 온 땅으로 흘러갔다. ... 내가 평생 알아온 사람들 중에서 오직 그만이 일보다 생명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금세기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윗치만 니, 윗트니스리 저, 92쪽).

이 발췌문이 나온 장의 제목은 ‘일보다 생명에 주의를 기울임’이다. 많이 일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실이 없다는 그 말씀을 나는 기억한다.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서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완전히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예수 먹어 하나 됐네  
 예수 먹어 신성하네  
 예수 먹어 빛 발하네  
 할렐루야, 먹는 길밖에 없네...”